

亦樂書齋再再論**

-도산서원의 교육적 기능 추구-

渡 部 學*

I

한국 서원의 역사적 추이는 신미(1871년) 大毀徹에서 귀결된다.

高宗 신미 8년 3월 20일, 예조는 「已賜額常存」 47院을 정하고 「外竝爲撤享撤額」을 행했다.(高宗實錄卷八, 十八十九帳). 이 결정은 「依兩度下教」하여 대원군 御前에 직접 「稟議」하여 행해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 「兩度下教」에 있어서 서원에 관하여 「도학」·「충절(天義)」의 두가지 징표(Merkmal)가 제출되어 있다. 다시 이보다 앞서 고종 무진5년 9월 초삼일의 敎에도 「節義·道學之俎豆崇報…」라고 있고 書院의 「立祠致祭」의 계기로서 이 두 가지가 분화되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辛未存置 47院의 立祠致祭契機를 충절·도학의 두 가지로 나누어 道別로, 그리고 창건 시대별로 조사하여 통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이 통계표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다.

1. 存置祠院의 대개 6할은 「충절」書院이다.
2. 存置書院의 대략 8할은 한반도의 남부에 있다.
3. 存置書院의 대략 6할은 이조후기(광해조 이후)에 창건되어 있다.
4. 단순히 「무슨 祠」라는 명칭을 가진 것은 전체의 42.6%이며 전지

* 武藏大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4호(1974) 게재논문

區分 道名	道 學				忠 節				計				總 計	
	中國	新羅	高麗	李朝	中國	新羅	高麗	李朝	中國	新羅	高麗	李朝		
京畿			1	4(1)				7(3)			1	11(4)	12(4)	
忠清				1				4(3)				5(3)	5(3)	
慶尙		1	1	8				4(4)		1	1	12(4)	14(4)	
全羅		1						2(1)		1		2(1)	3(1)	
江原								3(1)				3(1)		
黃海				2	1(1)		1(1)			1(1)		2	2(2)	
平安					2(2)			3(3)		2(2)		3(3)	5(5)	
咸鏡				1								1	1	
計		2	2	16(1)	3(3)		1(1)	23(15)		3(3)	2	3(1)	39(16)	47(20)
總計		20(1) (42.5%)			27(19) (57.5%)			47(20)				(100.0%)		
~宣祖 (1608)		10		(21.3%)	8(7)		(7.0%)			18(7)		(38.3%)		
光海 (1609)~		10(1)		(21.3%)	19(12)		(40.4%)			29(13)		(61.7%)	(100.0%)	

● 備考: 本欄中括弧内の 數字는 「무슨 祠」의 명칭을 가진 것을 內
書로 표시한 것이다. 또한 括弧內斜體數字는 百分比를 나타낸다.

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으나 「무슨 서원」이란 명칭을 가진 것은
경기 경상 양도에 많다.

5. 특히 「도학」 書院 은 경상도에 압도적으로 많다.

6. 「충절大義」의 사실내용이 되는 것은

임진란관계 8

호란관계 8

사회관계 4

내란관계 3

中國守節人 2

그밖의 守節 2

계 27

7. 主亨者만 보더라도 非業의 죽음을 감행한 사람이 26명으로 역시 전체의 약 6할을 차지한다.
8. 忠節書院 도합 27處 중에서 조선조후기에 창건된 것은 19처로 70.3%를 점하고 전 存置書院의 40.4%를 점하고 있다.

이상에서 여기 특히 주목해두고 싶은 점은 47院중 「충절」서원이 많고 그것도 조선조후기에 창건된 것이 많은 점이다. 이 점은 임진·정묘·병자로 연이어진 외세침입을 당해 더구나 병인양요 직후의 시기에 이 47院 存置가 결정된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앞서와 같은 조선조 후기로 看取되는 「도학」서원→「충절」서원 에로의 중점이행의 경향은 전 문화·사회의 추이 가운데서 거시적으로 보아 어떤 의의를 가지며 어떤 기능(function)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퇴계선생은 「서원」에 관하여 「相與講所聞以明其道以成己而成人」(伊山書院記)하는데 서원건립의 所以를 인정하고 있고 祠廟는 오히려 「視其力從其宜而已」(同上)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專於尊賢講道之美意」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이율곡선생도 「書院之建本爲藏修 而兼舉崇德報功之典」(應旨論事疏)하는 것으로 삼고 있었다. 서원건립의 계기인 「先師講學所立祠致祭」(柳洪烈 「조선에 있어서 서원의 성립」) 중에서 그 전반 부분에 중점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辛未 大毀徹에 와서는 「先烈殉節之地立祠致祭」라는 계기가 농후해져서

「至若忠節大義之炳人耳目 亦不可無崇報之地」(고종실록 권8 신미 8년 3월18일조)

가 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본래의 서원 성립 계기의 후반이 강조되고 전반부의 분화와 중점이행이 행해진 것이다.

吾人은 조선조 서원이 충절계기의 중시 즉 서원의 사원화가 조선왕조

사의 추이속에서 필연적인 귀결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서원성립본래의 교육적 계기의 중요성을 망각해 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충절대의가 도학의 근본취지의 實踐窮行인 이상 충절서원의 교육적의의는 경시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崇德報功」을 후인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은 역시 「藏修」의 실을 거두는 데 있고 이것이 등한시된다면 역시 교육의 후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II

19세기 조선조의 실학자 五洲 李圭景은 그의 「古今書院辨證說」(『五洲衍文長箋散稿』 권38) 가운데서

「(前略) 而書院之士 以聚處講貫 而學業易成 學成而散之 各州縣皆足爲後學之師 則其教也廣 而民可以化 俗可以成矣」

이라 하고 서원에 있어서의 聚處講貫群居肄業이 각 州縣에 後學之師를 제공하고 교육을 汎化하고 化民成俗을 달성한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그는 당시의 서원에 있어서의 교육공백화의 실황을 개탄하여

「一無讀書講磨之案」

라고 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五洲의 이 後者의 지적도 역시 다만 현상적으로 문제를 떼어서 파악하여 19세기 조선조 교육의 정체 퇴화의 증거로 보는 것을 놓친 것이 아닐까 싶다. 19세기 당시의 정부의 중점적 사고방식에서 보면, 「尊慕之意」에 입각한 「崇德報功」의 시설이 서원임을 즉 일본식으로 생각하면 서원은 私設의 靖國神社이므로 그 교육적 기능은

반드시 본질적 中核이 되는 것은 아니다. 「一無讀書講磨之案」인 서원이 있다고 해서 유달리 그것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할 것은 없다. 왕조정부 더러 말하라면 그것은 퇴화가 아니라 진보인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견해를 가능케한 것은 五洲의 前者의 지적 즉 서원의 교육적 확장 기능에 의한 교육의 범화가 그 배경요인으로서 실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정부측은 서원의 靖國神社的 기능을 중점적으로 장악하고 그 교육적 기능쪽은 국민의 사적 營爲에 맡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국가측의 교육적 태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도 이 점에 있어서의 국민교육의 汎化 진전이라는 당시 한국의 교육문화 전체의 적극적 측면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5·6세기의 뛰어난 在鄉유학자의 「藏書養拙之所」로서의 서당이나 그 유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群居肄業之所」로서의 精舍는 16세기 중엽 이후 立祠致祭와 더불어 서원에 수렴되어 갔으나 그 서원에서 일면으로는 당쟁의 폐가 생겼다고는 하나, 교육범화가 행해져 갔고 거기에 서당 교육이 파생·석출되어 16세기에 이르러서 「大約四五村必有一書齋」(「牧民心書」課藝草)라고 할 상태로 구현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두말할것도 없이 과학으로서의 교육 史學의 연구는 광대한 史的사실을 일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서 법칙성을 찾아내는 일을 임무로 하지만 조선 시대 사학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의 16세기로부터 18·9세기에 걸친 이 수렴-확장 기능의 해명이야말로 日帝期 교육체계 속에 깊게 썩기를 박은 한민족 독자교육의 자주적 보위기능의 해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이 필자의 문제설정의 구성이지만 그 아래서 한국의 典型書院에 관해서 그 성립의 경과와 발전추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히 구명해가는 실증적 절차를 결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하의 지난번 방한때 도산서원을 참배하고 알게된 것 약간을 간단히 보고해두고 싶다. 널리 독자의 질정을 바란다.

또한 이상의 所論은 1974년도 18회 교육사학회(10월 6일 於東京·

專修大)에서 구두발표한 바 있다.

III

1. 「先師講學所立祠致祭」의 전형적 서원인 도산서원의 一廓을 이루는 도산서당은 어떤 경과를 거쳐 성립되었는가?

퇴계선생의 「陶山雜詠」의 「記」에

「始 余卜居溪上 臨溪縛屋數間 以爲藏書養拙之所 蓋已三遷其地 而輒爲風雨所壞 且以溪上偏於闕寂 而不稱於曠懷 乃更謀遷 而得地於山之南也…」
(『퇴계선생문집』 내집 권3 六帳)

라고 되어 있고 도산의 堂(陶山書堂)·舍(隴雲精舍)는

「自丁巳(1557년) 至于辛酉(1561년) 五年而堂舍 兩屋粗成可棲息也」

라고 해서 5년의 세월을 걸려 완성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산서당은 四遷의 터에 신유년에 이룩된 것이다.

다른 편으로 연보에 의하면 퇴계선생은 명종 6년 병오(1546년) 2월 假還鄉을 아뢰어 귀향하여 퇴계의 東巖에 「養眞庵」을 세웠다. 이보다 앞서 小舍를 退溪之南芝山之北에 세웠지만 「人居稠密頗未幽寂」한 때문에 退溪의 下三里的 동암 곁에 이 養眞庵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속명 「兎溪」라고 불리우던 溫溪의 하류의 이 溪川을 선생 스스로 「退溪」라고 개칭하고 이것을 자신의 호로 삼은 것이었다. 도산잡영의 記에는 도산은 靈芝山之 一支脈으로 그 왼편을 東翠屏, 오른편을 西翠屏이라고 하고 전자는 淸涼山에서 뻗어내려 도산의 東翠를 이루고 후자는 영지산에서 뻗어와서 도산의 西翠를 이루고 있다. 또한 水系가 있어서

도산의 뒷편에 있는 것이 퇴계이고 도산의 前方南에 있는 것이 낙천으로서 퇴계는 산의 뒤 즉 북을 가로막아 산의 동쪽에서 洛川에 흘러든다고 되어있다. 앞서 養眞庵의 위치에서 이 도산서당까지는 동취병의 기슭을 돌아 가도 도보로 20분 이내의 거리다.

이 養眞庵이 퇴계선생의 최초의 假寓였고 「三遷」이라든가 「四遷」이라고 하는 그 시발점은 여기서 비롯한다고 생각된다.

그 후 선생은 霞明洞紫霞峯下에 營室했으나 그것을 마치기 전에 竹洞으로 옮겼다. 紫霞峯下가 一遷이오 죽동이 二遷일 것이다. 퇴계선생언행록 「樂山水」장에 의하면 자하봉하의 집은 낙천과 가깝고 낙천은 官에서 어림을 금하고 있는 곳이어서 「不宜子孫之居」라고 해서 죽동으로 거처를 옮겼던 것이다. 그러나 그 죽동도 「洞狹隘具無溪流」인 고로, 다시 三遷하여 溪上退溪의 서편에 定居하고 「構寒栖庵」하신 것이다.

선생 三遷의 居인 이 寒栖庵에 관해서는 언행록에 다음과 같은 鶴峯 金誠一의 筭記가 있다.

「先生五十歲 尙無家 初卜于霞峯中 移竹洞 竟定于退溪之上宅西臨溪 作精舍名曰寒栖 引泉爲塘名曰光影 植以梅·柳 開以三遷 前有彈琴石 東有古藤巖 溪山明媚 宛然成一別區焉…」

필자는 후손 李根必 선생의 안내를 받아 선생 생가의 서북쪽의 그 遺址를 보았는데 水田 가운데 탄금석이 오늘날까지 남아있고 그 정면에 溪를 사이에 두고 古藤巖같이 보이는 크고 아름다운 바위가 있었다. 溪의 流水는 淸冽했다.

연보에 의하면 이 寒栖庵의 堂名을 「靜習」이라고 하고 선생은 그 안에서 독서하셨으니

「自是從遊之士日衆」

이었다고 한다. 선생은 그 전년 즉 明宗4년 己酉(1549년) 풍기군수에

보임되어 임지에 있었으나 9월초 身病으로 監司에게 辭狀을 보내고 12월에는 白雲洞書院 賜額의 上書를 올리고 解官을 기다리지 않고 귀향하고 그해 즉 명종 5년 경술(1550년) 寒栖庵을 구축한 것이다. 그리고 그해 3월에는 소수서원 사액이 내려 8월에는 형인 左尹公 李滢(號溫溪)의 李芑構陷에의 한 流沒之事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해에는 한국 사액서원이 처음으로 생긴 동시에 형의 죽음에 의한 俗世無常觀의 형성이 있었던 것으로 선생에게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의 해였다고 여겨진다. 그 때 선생의 나이는 50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해는 「從遊之士日衆」하여 선생의 대교육가로서 출발확립의 해이기도 했다. 앞의 언행록에 의하면 김성일은 그 6년후인 명종11년 병진(1556년)의 해에 「始展拜於此」했는데 그때의 모습을

「左右圖書焚香靜坐 儻然若將終身人不知爲官人也」

라고 쓰고 있다. 실은 앞서 나온 陶山雜詠의 記에 선생 스스로가 「藏書卷拙之所」라고 기술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였던 것으로 이 장서관줄지 소인 寒栖庵이 동시에 그대로 「從遊之士」의 「藏修之所」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것은 교육의 이상적 상태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조선조 초기의 「書齋書堂」의 전형은 실로 이 寒栖庵에서 볼수가 있는 것이다.

선생은 그후 명종12년 丁巳(1557년) 선생 57세의 3월, 서당의 자리를 새로이 도산의 남쪽에 얻었다. 이때의 「改卜書堂地有感」의 2수 및 「再行視陶山南洞」의 시에 선생께서 「宿願」의 「百歲藏修地」를 얻은 기쁨을 읊어내고 있다.(내집 권2, 40帳)

연보에 의하면 陶山書堂, 隴雲精舍는 명종 15년 경신(1560년)에 「成」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도산잡영의 記에는 「신유」(1561년)가 되어서부터 「堂舍粗成可棲栖息也」라고 되어 있고 완성시기에 대해서 1년의 차질이 있다. 언행록의 鄭惟一의 筭記에는

「……卜地於陶山 築地藏書 地在江上 冬日甚寒不能居 春夏則常處其中

……」

이라고 한 것을 보면 庚申年에 당의 건축이 이룩된 즈음의 전후의 시기에는 선생은 아직 寒栖庵과 도산서당을 겸용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완전히 완성하여 도산서당에 通年 오로지 기거하게 된 것은 「十八絶」의 시가 지어진 즈음으로 신유년이 아니면 그 전후가 아닌가 추측된다. 寒栖庵에서 도산서당까지는 산넘어 길을 걸어 도보로 약 15분의 行程이라고 李根必 선생은 일러주었다.

위에 언급할 芝軒 鄭大誠이 선생을 뵈옵게 된 것은 지현이 17세 되는 해였으므로 난 해를 한 살로 쳐서 계산해보면 이후 신유년에 해당한다. 즉 이즈음부터 선생은 도산서당에 常居하고 從遊士子の 교육도 한층 본격화한 것이다. 선생은 도산의 당사가 「甚合所求 夢寐間常在此中」이라고 그 未成의 시기부터 말해왔고(言行錄 金富倫筭記) 봄·여름의 시기에 여기서 기거하시게 되었을 때부터 「若無當世之念矣」(언행록, 정유일)이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학문연구와 士子교육에 선생은 애오라지 전념했던 것이다.

이러한 도산의 땅, 즉 퇴계의 충족한 「강학지소」에 도산서원이 창건되었던 것으로 그것은 서원 본래의 모습을 가장 잘 顯現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亦樂書齋에 관하여

도산서원의 「西短麓上」(禮安郡邑誌)에 있는 亦樂書齋에 관해서는 鄭料가 그의 아들 子誠受業을 위해 세웠던 것이요, 필자는 그 築營年과 士誠入門年과 퇴계선생의 扁額手書의 삼자의 시간적·명칭적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또한 도산서원 성립 후의 기능상황도 불명하다.

그러나 그후 「大山先生文集」권49, 「芝軒鄭公行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것을 閱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점차 명확해져서 「亦樂書齋再論」이란 제목의 小論(「武藏大學 人文學會雜誌」 제5권 제3, 四合併號所

收)에 그후의 追求를 써두었으나 지난번의 현지방문으로 사정이 더욱 밝아진 것이다.

芝軒 鄭士誠은 7세에 퇴계선생의 문인 金惟一齋에서 배우고 그 후 한 가지로 퇴계선생의 문인 具柏潭 金芝山한테서 배운 다음

「許年十七 謁李先生 于陶山仍請業……」

이 때에 이름을 士誠이라 명하고 선생한테서 그것을 手書하여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右尹公爲公構小齋於陶山 使之居學先生 名其齋曰童蒙 願謂公曰爾須 刻厲用工毋負親庭之望也……」

이에 의하면 최초로 세워진 小齋는 정사성이 17세에 입문한 해 즉 사성의 탄생한 해 「嘉靖 을사」(인종6년 1545년)에서 산정하여 명종16년 신유(1561년)에 세워진 것이며 그 해는 도산의 堂舍가 완성된 해이고 따라서 퇴계선생이 도산에 常住하시게 된 해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小齋의 명칭은 「童蒙齋」였던 것이나 도산서원의 현재의 관리자 李源由 선생이나 李根必선생의 말하는 바에 의하면 최초의 이 童蒙齋은 초가집의 작은 齋舍였다고 한다.

퇴계선생 연보 「庚申」條에는 「陶山書堂成」이라고 되어 있고 선생이 「左右圖書 俯讀仰思 夜以繼日」하여 怡然自得 所造益深이었다고 적혀있고 그 뒤에 계속해서

「……其後學徒於精舍之西築室以處 名曰亦樂 取論語自遠方來之義也」

라고 적고 있다. 이 「其後」은 어느 해를 말하는가? 앞서나온 「禮安郡邑誌」에는 隴雲精舍의 「西短麓上」에 있는 「亦樂齋」는

「鄭料爲其子士誠受業而營築 扁額李滉手書」

라고 되어 있으나 「芝軒仰公行狀」에 적혀있는 「童蒙齋」와 「퇴계선생연보」에 적혀있는 「亦樂書齋」와 이 「亦樂齋」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를 필자는 잘 알 수가 없었다. 「亦樂書齋」의 營建年은 명확치 않으나 퇴계선생이 扁額을 手書한 것이었으므로 「其移」라는 것은 辛酉(1561년경)~庚午(선생의 沒年, 1570년)간의 이른 시기라고 생각된다. 「亦樂書齋」라는 것은 鄭두가 세운 「童蒙齋」를 改築(地點은 약간 다르지만)하고 개명한 것으로 친구가 있어서 먼 데서 온다는 뜻을 취했다고 함으로 그것은 역시 「童蒙」이 수업을 위해 「居」하는 곳이 아니라 從遊之士가 群居肄業을 위해 찾아와서 유숙하는 精舍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亦樂書齋」는 雲精舍의 새로운 支舍가 된 것이다.

IV

이상의 여러 가지 점에 관해서 도산서원 성립의 諸契機의 교육사학적인 종합적 論究는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 명백해진 도산서당 성립의 구체적 경과와 亦樂書齋 성립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산서원 창건사역 이후의 이러한 서당, 서제, 정사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도산서원이 여하히 교육적으로 기능했느냐에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도산서원의 「院規」를 기본으로 하고 이번에 閱覽書寫할 수가 있었던 「講會錄」이나 「講會日記」에 의거해서 금후 상세하게 추구해 보고 싶다.

(신 정 암 譯)